



8월의 기도

1. 힘든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 수고가 현지 사람들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2. 더위가 험겨운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계절을 힘 있게 지나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여름의 피약별 아래에서도 주님의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라라 믿습니다.
3.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기업들과 일터 가운데 성실과 혁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에게는 일자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안정된 삶이 주어지게 하시옵고 경제 정책을 세우는 이들에게는 깊은 통찰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대한민국이 나눔과 책임의 정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4. 우리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자리로 보내주셔서 겸손과 지혜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마음에 의심치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23)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문제의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심이 없어지고 평안하게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다가오면 그 다음에는 문제의 산이 바다로 던져지라고 명령하십시오. 말에는 기적을 가져오는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산 너머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별로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할머니가 산을 넘기란 여간 힘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나님, 산을 넘으려니 몹시 힘이 듭니다. 이 산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음속에 산이 옮겨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성경에서 본 대로 “산아, 바다에 던져질지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산이 옮겨졌습니다. 그때가 일제 시대였는데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산이 깎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는 수없이 높고 낮은 산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다음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문제의 산이 옮겨지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DCEM 2006년 해외성회



① 조용기 목사 초청 교회성장 특별세미나는 1,300여 명이 참석했다. ② 강단에서의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와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③ 성회를 마친 조용기 목사는 거동이 불편한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④ 교회성장특별세미나가 진행된 야마토갈보리채플 외부 축전 전경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선 일본은 1900년대 4500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 100년동안 무려 7000만여 명이나 증가해 1억 여명이 살고 있다.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DCEM은 일본의 주요 교단과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본 구령을 앞당기고자 노력해 왔었던 행보들 가운데 2006년 6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개최되었던 '교회성장 특별세미나'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2006년 6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토갈보리채플에서 실시된 조용기 목사 초청 '교회성장 특별세미나'에는 일본인 목회자 1천 3백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DCEM



이 주관하고 갈보리채플(오오카와 츠구미치 목사)이 주최한 본 세미나는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 비결과 성령운동에 대한 노하우를 듣고 '일본 일천만 구령'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일본의 중심인 가나가와현을 비롯해 도쿄, 지바, 야마나시, 사이타마, 시즈오카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인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두 차례 말씀을 전한 조용기 목사는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 갈보리채플 오오카와 츠구미치 목사는 야마토갈보리채플을 중심으로 일본의 교회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해왔다.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고 교회성장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오오카와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준 목회자로서 조 목사님의 노하우와 경험을 일본의 목회자들과 함께 듣기 위하여 교회성장 특별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성회는 야마토갈보리채플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갈보리채플 20여 개 지교회에 동시 생중계 됐다. 성회가 실시된 야마토갈보리채플에는 일본에서 현재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는 물론 신학생, 선교사들도 함께 자리해 일본의 교회성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1부와 2부로 진행된 본 성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의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목회자의 메시지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목회자의 메시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져야 할 희망'이라 전하는 한편 설교자의 카리스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일본은 전 지역을 통틀어 약 7~8천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 중 60%는 성도수가 20명도 채 못된다. 교회 성장은 곧 일본 복음화를 앞당기는 중대한 일이자 오랜 과제이다.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2006년 6월에 열린 일본 교회성장 특별세미나는 일본의 목회자들이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가슴 속의 희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로 일할 나이인데 우리나라의 30대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지치고 고달픈 삶을 살고있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누가 구출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힘과 생명을 주어야 하는데 예수그리스도 이외에는 빛과 힘을 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힘ियो,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들어와야 힘과 능력과 용기와 미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희망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깊은 바다속에 허우적거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마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게 희망이 있습니까?” “있고말고. 내가 그 희망 아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얼마나 깜짝 놀랄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일들은 찬란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오종복음의 축복속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모든 흉악한 죄가 다 용서되고 의로운 사람이라 주님이 시인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행위가 없이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평생의 용서를 영원히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고통을 통해서 병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재책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들의 병이 고침을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은 것을 믿어야 주님 얻어맞은 그 피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에 허덕이는 이 세계에 오셔서 저주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너희로 부요케 할 것이라고 너희 영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육체의 생활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벌로 저주를 받아서 험하고 굶주리고 살아온 그 모든 세월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십자

가 못 박히고 피 흘림으로 모든 가난과 저주를 처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 희망으로 가득한 삶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신앙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희망과 기쁨으로 찬탄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어두움이 세상을 다스릴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시면 희망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지배 아래 섬기던 자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실천적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우리는, 마음속에 오종복음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얼 해야 되나? 마음에 오종복음을 채워 넣으면 기막힌 사람이 됩니다. 오종복음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마음에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서 오종복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종복음까지는 물질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4차원의 영성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오종복음을 4차원의 영성이 다스립니다.

우리 환경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신앙 선포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창조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었는데, 그대를 쓰지 못하고 있느냐?”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활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하려면, 생각의 발에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생각이 있지요? 여러분은 생각이 있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생각이 있는데, 생각에 무엇을 심느냐? 꿈을 심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무슨 꿈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마음의 생각에 꿈을 심습니다. 그리고 꿈을 심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변하고,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 오종복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셔드리면 희망찬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종복음이 있으면, 오종복음까지는 물질이지만 4차원의 영성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4차원의 영성을 통하여 꿈, 믿음, 창조적인 선언이 돼서 우리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기막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 전투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 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쌓여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계에 개인, 가정, 사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1. 빛이신 예수님

세상이 하도 추해지고 어두워지니까 우리들을 견져달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어둠을 빛으로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은 죽어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의 마음에 영의 등불이 다 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인생에 빛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후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는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길을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사된 시민희망지수를 보면 전체 연령 중에서 30대가 가장 비관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라면 가장 힘차게, 가장 의욕적

마태복음 15

속을 채우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5:1-2)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반 대중과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제자들은 장차 당신의 사역을 맡아서 계속해 나갈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로부터 잘 배워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나중에 온 천하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 할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12제자를 뽑아서 항상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24시간 내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3년여동안 그들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일반 대중에게는 전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24시간 같이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에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제자요, 예배에 와도 소극적으로 억지로 자리만 채우는 사람은 제자라기 보다는 대중입니다. 물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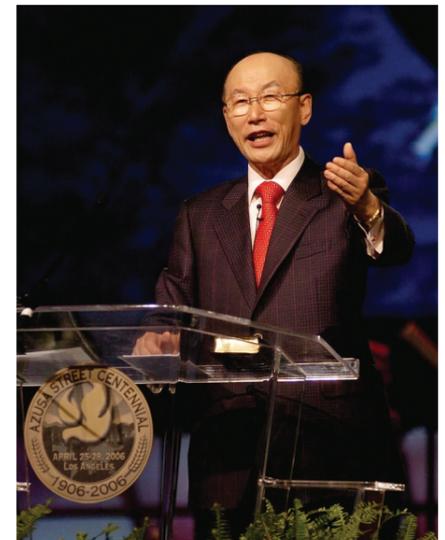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신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진리를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하늘에도 쌓아 놓을 곳이 없고, 땅에도 쌓아 놓을 곳이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진리가 예수님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예수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나게하고 가르치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진리의 말씀 속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이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5:3)

고린도후서 8장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을 온몸에 걸머지고 살다가 떠나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가난을 겪



어지고 사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의 저주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비워 놓는다는 뜻입니다. 빈 병에 물을 부어야 가득 담기듯이 우리의마음에서 세상의 것들을 비워 놓아야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가난해서 하늘나라가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에 세상 교만과 오만이 들어오고, 세상 욕심이 꼭 차버리면 천국이 밀려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천국이 점령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가 충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